

# 포항시, 전문기업 발굴해 '수소경제 허브 도시' 초석 다진다

24일까지 포항 지역 기업 신청 예비 수소 기업에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획득 등 1억원 지원

경북 포항시는 수소경제를 이끌어 갈 지역 내 우수 수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수소경제 허브 도시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수소 관련 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시와 도가 총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가 수행한다.

이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분야 우수 기술과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포항 소재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수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포항TP 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사업은 3일부터 24일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포항 지역 기업이 포항TP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지사가 포항에 소재한 수소 기업이면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1개 사와 20억 미만인 7개 사로 구분해 선정한다.

시는 시제품 제작과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전시회 출품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 수소 전문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인증/지적재산권, 전시회 분야에서 최대 1억 원의 기업 지원은 물론 매출액 요건에 따라 산업부 수소

전문기업 확인 신청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기회가 주어진다.

수소 전문기업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임을 산업부에서 확인받은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및 보조 융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친환경 수소 경제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수소 경제를 이끌어갈 우수한 수소 기업들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해 산업부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 시험기관인 포항TP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도 수소연료전지 분야 KS(한국산업표준) 인증 위탁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국토부 수소 도시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수소 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규덕 시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체 에너지로 수소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시도 중·장기적인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우수한 수소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 동북댐 가뭄에 메마른 바닥 위기

광주·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를 가두고 있는 동북댐이 말라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북호 상류 제2취수탑 주변은 지난해 11월보다 메마른 모습을 보였다.

동북댐의 저수율은 이날 기준 20.96%를 기록하면서 연일 감소하고 있다. 만일 봄에 도 가뭄이 이어질 경우 동북호는 오는 5월 고갈이 예상된다.

/광주=김종식 기자 skjong1@

창원시

### 시정 참여 청년인재 모집

경남 창원특례시는 6일부터 전문지식 또는 전문경험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모집한다.

청년인재풀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책자문, 서포터즈,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및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전문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만 19~34세 청년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만 39세까지, 기타 농업 분야의 경우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만 50세까지 청년으로 적용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 밀양시, 투명페트병 배출 무인회수기 운영

경남 밀양시는 이달부터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운영한다.

시는 배달·택배·1회용품 소비 등의 증가로 페트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재활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판기 형태의 회수기를 설치했다.

투명페트병 회수기는 아리랑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의 하나로 삼문동 일원(밀양시립도서관, 밀양시보건소, 문화체육회관, 삼문동 파크골프장,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5곳에서 운영 중이다.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수퍼빈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대중교통망 개선과 KTX이음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

## KTX이음 정차역 방안 착수

울주군, 대중교통 체계 개선 나서 버스노선 개편, 서비스 개선 요구

울산 울주군이 지역 대중교통망 개선과 함께 KTX이음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은 '울주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았다.

앞서 울주군 교통체계는 광역철도 환승 시스템이 미비해 환승시설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증가하면서 버스 노선 개편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과 '도심 교통혼잡 완화', '지역 수요

맞춤형 진단' 등을 목표로 현황 분석과 전략수립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시간선체계 원칙 및 기준 확립 ▲기존 운행 노선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대중교통 만족도 및 민원사항 분석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수단의 이동편의수준 분석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한 대중교통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등이다.

용역사는 KTX이음 남창역 미정차시 울주군 남부권 주민의 KTX이음 정차역 이동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통행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고흥군, '우수발사체 조립장' 선정 총력

전남 고흥군은 우수발사체 조립장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형 우주발사체 체계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조립장으로 고흥, 순천, 창원 등 3개 후보지를 놓고 입지를 고려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 지자체 가운데 기반 구축, 정주 여건, 지자체

지원 등을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흥군민 대다수는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이 발사체 조립장으로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군민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후보지 평가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주발사체 조립장 고흥군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남도, 항만 관련 공공기관 집적해야

국내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항만물류업체의 67%는 부산항신항, 진해신항 등 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을 집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에서 조사한 문기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받은 '신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관련 기관·업체의 집적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해운·항만 관련 행정기관·기업의 신항만 집적을 통한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반 마련과 다양한 항만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객 중심 항만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 전남도, '농촌서 살아보기' 전국 첫 운영

보성 다향울림촌 마을서 시작

전남도가 보성 다향울림촌마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3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앞서 추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농림축

산식품부가 벤치마킹해 2021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다. 도시민이 농촌에 살아보면서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과 상호 소통하며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전국 9개 광역시·도 114개 시·군 130개 마을에서 500여 가구 모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창녕군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도와

경남 창녕군은 6일부터 10일까지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에 해당해야 한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나주시

### 초등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전남 나주시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입학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10만원권 지류형 또는 모바일 나주시사랑상품권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나주시는 3월 한 달간 초등학교를 통해 직접 신청을 받고 4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